

Warm heart & Cool head

ECONOMICS NEWSLETTER 제 23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홍기현 / 편집인 : 이철희 · 김영식 / 편집조교 : 심경보

본격적 경제이론 교육 한 세대를 넘어서

공채 1기 이승훈 교수 정년퇴임



경제학부에서 지난 33년간 경제학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해 왔던 이승훈(李承勳)교수가 2010년 8월 정년퇴임한다. 이승훈 교수는 1970년 본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미국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승훈 교수는 1977년 본교 경제학과 공채 1기로 부임한 이래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 힘써왔으며, 특히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국내외의 수많은 후배 연구자들을 양성해왔다.

미시경제학자로서 이승훈 교수는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등 12편의 저서와 경제학 최고의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실린 'The Price of Final Product After Vertical Integration' 등 33편의 논문을 통해 우리 경제학 연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인으로서 경제학의 정립 및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경제학계 인사에게 한국경제신문이 수여하는 2008년도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경제학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의 학회장을 맡아 국내경제학자들의 연구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교내에서도 이승훈 교수는 사회과학연구원장,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장 등의 교내 보직을 맡으며 학생지도와 학사업무에 크게 기여해 왔다.

(2면에서 계속)



▲ 고별강연 중인 이승훈 교수



▲ 고별만찬회에서 참석자들과 자리한 이승훈 교수

관악세대 오성환 교수 사회과학대학 학장 취임



지난 2년간 경제학부 학부장을 맡아 학부 발전을 이끌었던 경제학부 오성환 교수가 2010년 7월 16일 본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취임하여 관악캠퍼스 세대 출신으로서 최초로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봉직하게 된다. 경제학부 및 사회과학대학의 폭넓은 세대를 통합하는 중심의 위치에 관악세대가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대학은 경제학부를 비롯하여 정치외교학부, 지리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및 여성학협동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부 학년별 등록인원은 경제학부의 170여 명을 포함하여 총 400여 명에 이르고, 전체 학부생이 약 2,000명, 대학원생이 약 600명에 이

르는 대규모 단과대학이다. 오성환 교수는 1979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에 미국 브라운대(Brow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 UCLA대(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에서 교수로 봉직하다가 1991년 본교 경제학부에 부임하여 지금까지 화폐금융론과 거시경제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고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내어왔다. 오성환 교수는 집필한 많은 논문들을 경제학 전 분야에서 최고의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와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하였고 화폐금융론/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술지인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에도 게재하였다.

INDEX

② 경제학부 주요소식 ⑤ BK21사업단 소식 ⑥ 신입학부장 인사말 ⑦ 동문기고 ⑧ 재학생기고(학부) ⑨ 재학생기고(대학원) ⑩ 동아리소개 ⑪ 경제학부 단신 I ⑫ 경제학부 단신 II

경제학부 학술행사

제4회 Annual Joint Workshop-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Wollongong

경제학부와 BK21사업단은 2010년 2월 8일 사회과학대학 655호에서 제4회 Annual Joint Workshop(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Wollongong)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제학부 BK21사업단 단장인 이근 교수와 본교 경제학부 Elias Sanidas 교수, 울런공대(University of Wollongong) 경제학부의 Ed Wilson 교수 등이 기조연설 및 세션 진행을 담당하고 발표는 주로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울런공대 인디카 카루나야케 외 2명, 서울대 김종주 외 9명

참여). 1부에서는 ‘금융위기와 은행부문(Financial Crisis and Banking Sector)’이라는 주제로, 2부에서는 ‘해외직접투자자와 생산성(FDI and Productivity)’이라는 주제로 본교 경제학부와 호주 울런공대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나갔다. 한 대학원생은 “아직 학생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본인의 연구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유익한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기뻐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중국과 북한 경제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Economies of China and North Korea)

현대중국학회(KACCS), WCU (World Class University) 및 BK21사업단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2010년 3월 24일 본교 940동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학부의 이근 교수 (KACCS 학회 회장, BK21사업단 단장), 김병연 교수 및 시팡선 교수를 비롯하여 김시중 교수(서강대), 서봉교 교수(동덕여대), 지오바니 페리 교수(University of

Bari, 이탈리아), 푸롱 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존 나이트 교수(Oxford University, 영국), 리우 리강(ANZ Bank, 호주), 해리 우 교수(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자오 창웬 교수(Sichuan University, 중국) 등이 참석하여 중국의 경제추격, 은행시스템과 산업성장, 그리고 높은 투자율 및 북한의 시장과 부패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인준 교수)는 2010년 2월 9일과 10일에 걸쳐 본교 사회과학대학(16동)과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에서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체회의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의 경제학회 회장들 및 경제학자들, 호주의 경제학회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도래와 동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분과별 회의에 50개의 학회들이 참여하고 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루어졌다. 우리 학부 교수 중에서는 홍기현 교수가 한국경제사학회에서, 안동현 교수, 김소영 교수(이상 금융경제 Workshop), 황운재 교수(계량경제 Workshop)가 한국경제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분야 교수들과 함께 토론하였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

본교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대학 교수들과 함께 2010년 6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1세기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최 측은 “사회과학 학문 분야 간 통합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21세기 미래 추세에 비추어 한국사회의 미래 발전 및 성장동력을 제시하려 한다.”고 이번 심포지움의 계획 취지를 설명하였다. 세션 1

에서는 김병연 교수가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부족과 함정’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고 이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세션 2에서는 홍기현 교수가 ‘사회인식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세션별로 발제자들은 한국기업과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유용한 견해들을 제시하였고 토론자들은 적극적인 질문으로 참여하였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 제자들과의 기념촬영

이승훈 교수는 지난 6월 1일 본교 박물관 강당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자유와 번영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정년퇴직 고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고별강연회에는 학부 및 대학원생뿐 아니라 이승훈교수에게서 미시경제학을 배우고 각계의 우수 경제학자로 성장한 수많은 후배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스승의 마지막 강의를 경청하였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본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학부가 주최한 이승훈 교수 정년퇴임기념 고별만찬회가 열렸다. 이승훈 교수는 지난 30여년 교육과 연구의 길에 대한 회고와 참석자들에 대한 감사의 소감, 퇴임 후에도 연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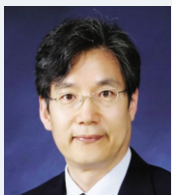
교수수상

황윤재 교수 제40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황윤재 교수가 2010년 3월 26일 '제40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 40회째를 맞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이다. 황윤재 교수는 '확률적 단조성의 검정 (Testing for Stochastic Monotonicity)'과 '확률적 지배관계에 대한 부스트랩 검정법 (An Improved Bootstrap Tests of Stochastic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두 논문을 각각 권위있는 경제학술지인 『Econometrica』와 『Journal of Econometrics』에 게재하는 등 계량경제학에서 높은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재무경제학에서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최적 투자전략 선택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연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로 선정



김병연 교수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2010년도 우수학자'로 선정되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천만 원의 연구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의 국제화 및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인 연구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병연 교수는 앞으로 체제이행 및 북한 경제와 관련된 주제의 저술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기존 체제이행의 경제이론을 경제발전, 제도경제학, 신정치경제학과 연관시켜 이해함으로써 해당 경제학 분야의 연

구 범위와 방법을 확장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북한의 체제 이행이나 남북통합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인 교수 청람상 수상



이철인 교수가 2009년도 '청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청람상'은 신진경제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한국 경제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경제학회가 제정한 상으로 수상가능 연령이 4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심사위원단은 수상 후보자들이 최근 2년 이내에 출판한 저서와 논문을 심사하여 연구업적이 가장 우수한 학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이철인 교수는 1996년 미국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2009년 3월에 부교수로 부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시경제이론, 노동경제학, 재정학 등을 강의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승훈, 김선구 교수 2009학년도 우수강의 교수 선정



경제학부는 2009년도 우수강의 교수로 이승훈 교수와 김선구 교수를 선정하였다. 우수강의 교수는 2009년도 1,2학기 강의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교수 신간안내

거시경제론(제9판)

정운찬, 김영식 / 율곡출판사 (201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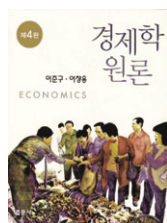


『거시경제론』은 한 국가경제의 집계변수들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의 기본 틀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번 9판에서는 특히 지난 2007~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기된 기존 거시경

제학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감안하여, 금융과 거시경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와 기본 개념 및 이론 또는 모형을 기존 거시경제학의 논의와 종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경제학원론(제4판)

이준구, 이창용 / 법문사 (2010. 2)



『경제학원론』은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우리나라의 살아 숨쉬는 경제 이론들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경제학의 정의 및 연구 방법론과 같은 기초에서부터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의 기초 내용에 이

르기까지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게 집필되었다. 이번 4판에서는 개정작업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별히 '행태경제이론'이라는 경제학의 뉴프론티어가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경제학원론: 연습문제와 해답』을 발간하여 『경제학원론』의 각 장 끝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간략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학(제2판)

류근관 / 법문사 (2010. 3)



경제학부 류근관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통계학적 사고로 풀어내어,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통계학 교재이다. 공식의 증명보다는 직관, 만화, 도표, 그림

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통계학을 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EXCEL을 이용하여 통계지식을 활용하게 했으며, 가상자료보다는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통계학의 응용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비대칭도, 첨도,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표본분포 도출방법, 평균과 분산에 관한 단일표본 검정, 복수표본 검정, 회귀분석에서의 검정방법 등과 많은 새로운 예가 추가되었다.

교수동정

홍기현 교수 경제학부장 취임



경제학부 홍기현 교수가 2010년 7월 16일 지난 2년간 경제학부장을 맡아왔던 오성환 교수에 이어 경제학부 학부장에 취임하였다. 홍기현 교수는 1980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83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87년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홍기현 교수는 1989년 본교 경제학부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경제학설사를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다.

강광하 교수 지식경제부 신임 정책자문위원장에 위촉



경제학부 강광하 교수가 7월 7일 제1대 위원장이었던 오연천 교수(8월 2일 서울대 총장 취임)에 이어 제2대 지식경제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강광하 교수는 텍사스 주립대(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81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계, 업계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식경제부 정책 방향에 대해 장관이 직접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인호 교수 산업조직학회장 취임



이인호 교수가 2010년 2월 9일 한국산업조직학회 차기 회장에 취임하였다. 한국산업조직학회는 1984년 창립된 이래 한국 산업조직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 해왔으며 정기학술지인 『산업조직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월례발표회 및 연 1회 정기학술대회와 같은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의 수행과 산학협동을 위해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신임회장인사에서 이인호 교수는 “기존의 산업조직학회의 정기적인 학술활동과 더불어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중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금융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서 따로 연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일조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영섭 교수 SSCW Council member로 선출



전영섭 교수가 'Society for Social Choice and Welfare(이하 SSCW)'의 'Council member'로 선출되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학회의 사결정에 관여하게 되었다. SSCW는 사회적 선택 이론과 후생경제 분야의 학자들 간의 학술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학회로서 정기학술지인 『Social Choice and Welfare』를 연 8회 발간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뛰어난 학자들을 선정하여 'Social Choice and Welfare Prize'를 수여하고 있다. Kenneth Arrow, William Thomson 등이 분야의 여러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SSCW Council member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 한국인으로서는 전영섭 교수가 유일하다.

월암(月巖) 강명규 명예교수 별세



월암 강명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5월 3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대 1962년부터 1998년까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경제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 또 재원연구재단을 설립해 후학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아담 스미스의 방법론에 관하여’와 ‘슈메터의 경제학 체계와 사상’ 등의 논문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강연선 대전국제학교 발전협력처 디렉터 등 2남 2녀가 있다.

첸강 수(Chenggang Xu) World Class University 공동연구자 서울대 첫 강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육성사업'에서 경제학부 김병연, 이근 교수와 함께 해외초빙 공동연구자로 선정된 첸강 수(Chenggang Xu) 교수가 2010년 1학기 서울대에서 Topic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Economic Systems이라는 과목을 강의하였다. 첸강 수 교수는 1991년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홍콩대(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제도경제 및 중국경제로, 권위있는 경제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교수 신규임용



이석배 교수



주병기 교수



이지훈 교수

경제학부는 2010년 8월 이석배 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하였고, 2010년 9월 주병기 교수와 이지훈 교수를 부교수로 임용한다. 이석배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졸업 후 아이오와대(University of Iow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계량경제학이다. 주병기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졸업 후 로체스터대(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미시경제학과 재정학이다. 이지훈 교수는 캠브리지대(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미시경제학이다.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으로 활동

우리 경제학부는 2006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 사업단은 2010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15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7회 ● 장단기연수지원 장기회 단기 14회

아래는 2010년도 상반기 BK21 사업단의 상반기 학술활동의 상세내역이다.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Yoko Konishi (RIETI)

Measuring the Firm Specific Productivity: Did We Lose the Lost Decade?

Anna Khmelnitskaya (University of Twente)

Values for Cycle-free Directed Graph Games

David S. Lee (Princeton University)

Quasi-Experimental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in the Regression Kink Design

Paulo Conconi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Policymakers' Horizon and Economic Reforms

이철인 (서울대학교)

Social Values and Economic Growth

Shigeo Muto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Fee versus Royalty Policy in Licensing through Bargaining : An Application of the Nash Bargaining Solution

Junichi Itaya (Hokkaido University)

Partial Tax Coordination in a Repeated Game Setting

Chung-Ming Ku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rge-Scale Multiple Testing without Data Snooping Bias : Methods and Applications

Maurice Salles (Universite de Caen)

Limited Rights and Social Choice Rules

John Gibson (University of Waikato)

We Don't Eat that Stuff! Untangling Non-consumption from Infrequent Purchase and Storability When Dealing with Zero Expenditures in Household Survey Data

한희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onstationary Semiparametric ARCH Model and Nonparametric Cointegrating Volatility Model

Pierre-Olivier Gourinchas (UC Berkeley)

When Bonds Matter: Home Bias in Goods and Assets

Manipushpak Mitra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No-Envy, Strategy-Proofness, and the Pivotal Mechanisms in Queueing Problems

Guillaume Rocheteau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Liquidity Constraints

Jota Ishikawa (Hitotsubashi University)

Is 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Beneficial?

Brown Bag Lunch 세미나

BK21 사업단에서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Brown Bag Lunch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손 진 1930년대 및 2000년대 금융위기와 자산 시장 불안정성 : 자금순환 분석

박용현 실적이 혼인상태에 미치는 영향 : KLIPS 자료를 통한 분석

김형진 Changing Trend in Income Shift

최형민 Engineering for Whom? - Dark Side of ELS

김대현 패널 이탈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추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태훈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임동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BK21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장기연수지원

배연호 미국 SUNY Albany
FDI추세에 따른 자본시장 지역주의화 분석-NAFTA와 EU 비교분석-

단기연수지원(논문발표지원)

이준협 (박사후연구원) 타이완

Types of Corporate Innovation System and Firm Performance in Korea: Comparative Analysis on Service and Manufacturing Firms

이재형 (BK부교수) 미국/보스톤

Using Cross-Country Panel Data to Compare Income Elasticities of Social and Physical Technologies

김동구 (박사과정:1팀) 미국/휴스턴

Green Productivity and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with Hybrid Input-Output Tables and Supply-Use Matrix

윤민호 (박사후연구원) 영국/런던

Technological Interrelatedness, Knowledge Generality and Economies of Scale in the Evolution of Firm Boundaries: A "History-friendly" Model of the Fabless Ecosystem

김동구 (박사과정:1팀) 호주/시드니

Green Growth Accounting with Combined Use of Hybrid Input-Output Tables and Supply-Use Matrix

김바우 (석사과정:3팀) 터키/이스탄불

Do We Really Have Inequality Aversion?: Almost No Rejection in a Generalized Ultimatum Game Experiment

김정빈 (석사과정:3팀) 터키/이스탄불

Weak Demand Operator and the Dutta-Kar Rule for Minimum Cost Spanning Tree Problems

전영섭 (BK참여교수) 터키/이스탄불

Do We really have Inequality Aversion?: Almost No Rejection in a Generalized Ultimatum Game Experiment.
Weak Demand Operator and the Dutta-Kar Rule for Minimum Cost Spanning Tree Problems

임부루 (박사과정:2팀) 그리스/아테네

Comparing the Behavior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and the U.S.

박준기 (석사과정:2팀) 그리스/아테네

What Determines R&D FDI in Rich vs. Poor Host Countries: Country-Panel Analysis

김선영 (석사과정:3팀) 싱가포르

The Uniform Rule in the Water Allocation Problem

장인기 (석사과정:3팀) 싱가포르

Do We Really Have Inequality Aversion?: An Experimental Study

전영섭 (BK참여교수) 싱가포르

Fair-ranking Properties of a Core Selection and the Shapley Value

정승호 (박사과정:7팀) 에스토니아

Estimating Dynamic Patterns of North Korea's Growth Accounting: a Kalman filter Approach

동문과 학부모 여러분께

경제학부 선후배 동문, 재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이번 7월 중순부터 새로 경제학부장을 맡게 되어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지 30년이 된 해입니다. 그동안 학교나 사회나 강산이 세 번 바뀔 정도로 변했습니다. 뭔가를 관찰할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경제사상사를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회 변화와 경제학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점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생활변화입니다. 의식주를 겨우 해결하는 데서 벗어나 대부분 세대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경제이론의 복잡성이 커지고, 측정 방법의 정밀성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이론의 수입에 급급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세계 학계의 프론티어와 나란히 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다른 나라에 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면에서도 세계 일류 대학 어떤 곳에 비해서도 탄탄한 기초 교육과 시대 추세를 반영한 전공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수준면에서 세계 어느 대학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대학 출신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 각국의 경제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높아진 교육 수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화자찬 격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나아가 경제학 전체에 대한 기대만큼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의 세계 금융위기를 통해서 “경제학자들이 과연 올바른 상황인식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놓았는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존 경제이론을 리콜(recall)하고, 경제학자들도 재교육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매서운 질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면에서도 사회적 부담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



홍기현 교수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의 적합도가 떨어져서 국가 경쟁력 순위를 내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을, 20세기의 학자들이, 19세기의 이론으로 가르친다는 비유도 듣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러한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이론이 하루아침에 확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의 훌륭한 성과들을 살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론체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세계대 공황기에 살던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서두에서 경제학의 기존 관념들이 상당히 공고하며 변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 관념이 고착되는 것은 경제하면서 기존의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 연구와 교육의 방향을 잡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경제학의 실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정책당국자, 산업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경제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동문들과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 어떤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생들도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수들과 고민을 함께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의 학생들은 우수한 학업능력, 외국어 사용 및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어디서든지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있습니다. 다만, 외국 대학 졸업생에 비교하여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혼자

서 뭔가 개척해나가고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교육과정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우리 대학부터 앞장서서 고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사상사라는 비교적 넓은 시기와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공부한 탓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행정적인 일을 다소 해보아서 그런지, 경제학의 장점과 함께 그 한계를 느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다른 분야, 특히 심리학의 인지이론이나 경영학의 조직이론 분야의 책을 보고 도움을 얻은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 의사결정시에는 의사결정의 내용보다는 절차와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므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학부의 성과와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 인력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대형 강의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치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학, 법학, 심리학 분야 등의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다른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정밀한 분석으로써 세상에 빛을 비추었던 경제학에서, 여러 분야 지식을 포괄하는 균형 잡힌 경제학으로, 나아가 세상에 균형 있게 열매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경제학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졸업 (1980. 2)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 (1983. 2)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1987. 12)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89.2 - 현재)

〈저서〉

『경제학 산책』, 김영사 (1992)
『알고 보면 재미있는 경제원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경제학도에게 TV기자는 …

내가 TV기자가 된 1984년 만해도 방송계에 서 서울상대 출신은 참 드문 존재였다. 이런 학교 배경은 방송사 입사시험 최종면접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제공했다. 정치학과를 나온 신문기자 출신의 고위임원은 “종합상사에 가서 국가에 기여하지 어떻게 이리로 왔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단단히 따져 물었다.

80년대 들어 컬러 방송이 시작되고 텔레비전 보급대수가 급격히 늘어가면서 TV가 미디어로서의 위력을 점차 드러내고 있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나 출입처에서의 위상은 신문기자에 비해 방송기자가 여전히 낮았던 게 당시의 현실이다. 상대 출신이 신문기자도 아니고 방송기자를 지망했던 사실이 그 임원 눈에는 뜻밖으로 보였던 듯하다. 하지만 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과 84년 LA올림픽 생방송 등을 통해 보여준 TV 매체의 무한한 잠재력은 이미 나를 방송으로 강하게 유혹하고 있었던 터였다.

예기치 않은 공격에 위기감을 느꼈던 탓이었을까? 통통하게도 즉석에서 떠오른 이런 대답으로 목소리 높여 항변했던 기억이 난다.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려면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제활동 참여자들 사이에 정보의 불평등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정보를 얻는 매체 순위 1위가 신문에서 TV로 바뀌었습니다. 경제학도로서 TV기자가 돼서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임원의 공세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TV기자로 발을 들여놓는데 성공했지만, 그때 면접자리에서 큰 소리쳤던 기억을 떠올릴 때면 과연 내가 그동안 올바른 정보 유통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늘 부끄럽기 그지없다.

나 자신이 별로 기여하지 못했지만 매체 환경과 정보 흐름은 지난 20여 년 동안 참 많이 달라졌다. 정보에 목말라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됐다.

군사정부가 권력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던 초년기자 시절은 정부의 언론통제가 극심했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TV의 9시 메인뉴스는 시보가 울리고 나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은 ……”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른바 ‘맹전뉴스’로 불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의 진전에 대해서는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뉴스를 만드는 보도국 안에서도 서로 쉬쉬하던 시절이었다. 실제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도국에 뒷사람들이 적은 야근하는 날 밤 편집데스크 책상 깔판 속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안은 이렇게 보도하라’는 내용의 ‘보도지침’을 몰래 찾아 읽고서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술자리에 가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질문을 받기 일쑤였다. 부끄러움 속에서 뉴스에 내보내지 못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얘기로 풀어가다 보면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이 자그마한 내용이라도 놓칠 세라 귀를 쫓종 세우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88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덕이자 케이블TV, 위성TV,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정보화의 덕이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정보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굳이 신문이 배달되기를 기다리거나 뉴스시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원하면 늘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신문이나 방송사에 소속된 기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퍼스널 미디어시대’까지 활짝 열렸다. 그야말로 정보 홍수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밖의 사람들로부터 듣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정보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언론매체들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고, 정보가 홍수를 이루다 보니 오히려 어떤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

매체의 신뢰 문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매체 간 무한경쟁 속에서 정확보다는 신속을 우선시하는 언론계 풍토, 언론인들의 이해가 개입된 지나친 당파성, 그리고 선정성을 어떻게 극복할 지는 언론계 종사자들이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다. 더구나 ‘정보가 돈’인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 널리 전파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 나아가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두뇌를 가진 전문가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요즘도 언론사 입사 경쟁이 치열한 편이지만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난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초반 사이 7년 동안에도 서울상대 출신의 언론계 입사가 전혀 없었던 적이 있다. 기자라는 직업이 주는 금전적 보상이 무역입국 시대였던 당시에는 종합상사 사원 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일 테고, 요즘도 경제학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직업군만 못하기 때문이라.

상업방송이 꽃을 피운 미국의 경우 스타 TV 기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연봉 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인지 인재들이 TV에 많이 몰린다. 반면에 전 세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 기자들의 급여는 영국 내 다른 직업군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도 BBC 기자 가운데 명문대학 출신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연구자가 이런 이유를 알기 위해 BBC 기자들에게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물었다. 대다수의 대답은 “돈 벌이 하려면 무엇이든 기자가 됐겠냐”였다.

〈학력 및 주요경력〉

- 1980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 1984년 MBC 입사 (경제부, 편집부 기자)
- 1991년 SBS 입사 (경제부, 정치부 기자)
- 1998년 SBS 워싱턴특파원
- 2001년 SBS 비서팀장
- 2003년 SBS 사회2부장, 미래부장, 경제부장, 정치부장
- 2008년 SBS 보도국장
- 2010년 SBS 보도본부장(현)

알립니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전하실 내용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다음번 소식지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담당자 이메일 : skb0629@snu.ac.kr

Go Bears! UC Berkeley에서의 한 학기



강효석
(학부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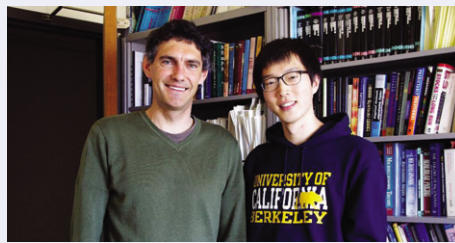
잔디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캠퍼스와 고풍스런 도서관에 대한 환상, 그리고 외국 학생들과 한번 경쟁해보고 싶다는 욕심, 저는 자연스럽게 교환학생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던 시점에 BESAP (Berkeley

Economics Semester Abroad Program) 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UC버클리 경제학부에서 아시아 지역 명문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 학기동안 수학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학부 차원의 교류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아니라 '방문학생' 신분이 되며, 서울대학교는 휴학을 하게 됩니다.) 첫 해인 2009년에는 서울대학교, 중국 칭화대학교, 그리고 싱가포르국립대 학생들이 초청되었으며,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와 대만국립대학교도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BESAP에 선발되어 2010년 봄에 UC버클리에서 한 학기동안 공부하고 왔으며, 이 기회에 학우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업 측면부터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4과목 13학점을 수강합니다. (재정 여건 및 공부 시간이 허락하면 수학 과목 등을 더 수강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학부 간의 교류인 만큼 두 개의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Special Topics in Economics'는 UC버클리 경제학부 교수진들이 매주 돌아가며 자신의 최근 논문을 강의합니다. 학생들은 그 중 관심 있는 주제 두 가지를 선택하여 15페이지 분량의 소논문 두 편을 작성해야 합니다. 논문 작성을 해본 적이 없는데다 영어로 써야 해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제가 쓴 글을 볼 때 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고칠 점들이 보여서 제출일 직전까지 글을 마무리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학술 논문을 읽어보고 논문 고유의 영어 표현도 익히게되면서 색다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Group Study in Economics'는 대학원생 조교와 경제학에 대해 토론하거나 진로·학업 상담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우리 경제학부 출신 박사과정 선배가 조교로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필수과목에 더하여 다른 두 과목은 경제학부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무경제학과 함께, 2009년에 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한 Emmanuel Saez 교수의 공공경제학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교과서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교과서에 있는 이론들을 학습하는 데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학계에서 최근 발표된 논문들과 그 아이디어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영감을 자극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공부 자체는 서울대학교에서보다 수월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UC 버클리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 유명하여 수강 경쟁이 치열합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는 수업 못지않게 학업 외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BESAP 학생들은 외국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아이하우스(I-House)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보통 2인실에 거주하며 식사도 기숙사에서 하게 되는데,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저는 노르웨이인 룸메이트를 만나서 가끔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축구경기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다만 파티가 자주 열려 시끄러울 때도 있으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한 학기 분의 식사(meal plan)는 가격에 비해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에게서든 일반 시민들에게서든 인종 차별이나 불쾌한 경험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단계로 (예기치 않게)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및 이용료와 높은 의료비용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바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뿐더러,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번거롭고 비쌌습니다. 큰 병 걸리면 집 팔아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까지 갔는데 공부만 하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버클리는 서부 여행을 다니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Bart라는 지하철을 통해 30분 정도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 갈 수 있고, LA, Las Vegas, San Diego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1월 초에 학기를 시작하고 3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 후에 1

주일간의 봄방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멕시코시티를 여행하였습니다.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멕시코를 이 기회가 아니면 가기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미국 동부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기 마치고는 차를 렌트해서 LA에 다녀왔습니다. 학기 중에도 요트, 암벽등반 등의 스포츠를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BESAP 프로그램을 통한 방문학생 경험은 보람되고 즐거웠습니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수강하면서 부끄럽기만 했던 영어 실력에 조금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경제학부의 높은 수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어학연수나 미국 생활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분께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학연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지만, 주립대 특성상 대형 강의가 많으며 비자 자격 유지를 위해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는 만큼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경제학에 흥미를 가지고 이를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개 세미나와 학술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책에 없는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들을 면담시간(OH)을 통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로 3~4학년 학생이 파견되는 만큼, 대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좋을리라 생각합니다.

BESAP 프로그램은 비록 교환학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많지만 지면 제약으로 이렇게 글을 마치는 것이 아쉽습니다. 경제학에 열정을 가진 학우들께서 BESAP을 통해 새로운 지적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나의 경제학 유학 준비 과정



은동재
(석사과정)

짧은 서두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으로서 지난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싶다. 이 글은 필자의 주관 및 경험에 근거해 있으므로 독자들의 의견과 다른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다. 각설하고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유학 준비를 해왔는지 편히 앉아서 읽어보시라.

어플라이 시즌 전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내 힘으로 현실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설명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경제학을 대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학부 때는 주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 모형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혼자만의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가졌었다. 당시에는 내가 생각해내는 모형들에 대한 가정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아니 내가 무슨 가정을 하고 있는지조차 무시하는 용감함을 가지고 툭툭툭툭 습작하기를 즐겼던 것 같다. 이런 종류의 '혼자만의 세상에서 상상하기'는 고급 경제학 과목의 term paper 과제를 받게 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전히 경제학자들의 논문들을 공부하는 데는 취미가 별로 없었지만, 나의 모형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시작한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얼마나 어려운 학문인가를 점차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이 어려움은 '미적분을 하다가 계산이 복잡해져서 나는 짜증'과는 그 격이 다른 것이었다. 필자의 선택은? '그래, 한번 부딪쳐보자.' 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에 진학한 후,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보니,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영어였다. 운이 좋게도 카투사로 군복무를 이행하여 병어리 수

준은 아니었지만 미국인과의 토론은 정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수준이었다. (사실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정말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미국 유학을 나가기 직전인 지금까지도 텅텅 땀만 있을 뿐 영어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학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학부생 시절부터 꾸준히' 영어실력을 키우라는 말은 꼭 하고 싶다.

어쨌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들을 내팽개치고 영어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붙잡고 있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다른 일로 바쁘게 대학원 생활 일년 여를 보냈던 것 같다. 수업에서 논문 또는 프로포절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형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보다 효율적인 계량경제학적 도구를 사용하려 하니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 외에도 해석계열 수학 수업을 들어야 했고 경제신문도 짬짬이 읽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어플라이 서류 작성을 해야 했다.

대망의 어플라이 시즌

어플라이 과정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곤혹스러웠다.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정의 세부정보를 입력하는데만 대략 2-3일이 걸렸던 것 같다. 어쨌든 어플라이 시즌에 닥쳐서 필자가 생각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다. 1. 진심으로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한다. 2. 내가 충분히 똑똑함을 어필할 근거를 문서화한다. (Why me?) 3. 지원 학교에 왜 가고 싶은지 지원서에 분명하게 포함시킨다. (Why this university?)

먼저, 필자는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진심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만 지원하였다. 당연한 말 같겠지만, 막상 지원할 시기가 되면 이 원칙을 놓치기 쉽다. All reject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며 지원할 학교를 무한정 늘리게 될 수도 있고, 옆의 친구들이 특정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괜히 따라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고 싶은 학교여야 보다 정성스럽게 어플라이할 수 있고, '선택'이 있어야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원칙은 꼭 지켰으면 한다. 참, 학교의 교수들의 연구, job market candidates의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가고 싶은 학교인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또한 진실에 근거해서 자기 PR을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어플라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똑똑함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별 생각 없이 선배 따라하기'이다. 개개인이 남들과는 다른 나름의 인생을 살아왔고 이것을 토대로 자기 PR을 해야 할 텐데, 자신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채 유학 잘 간 선배들과 비슷한 자기소개서로 일관한다면? 비록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최선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내가 무얼 하면서 살아왔고 그것이 나의 최종 또는 중간 목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일주일 생각해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굵직한 방법에 대해 이주일 고민해 보길 추천한다. 개인적으로는 친구와 함께 공동작업한 term paper를 영어로 요약해서 지원학교들에 보내는 방법을 택하였었다.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간략하게 문서화해서 지원할 때 첨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가능한 한 '짧고 굵게!'

마지막으로, 지원서에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은지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지어내야 할 텐데, 알겠지만 필자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참고로 필자는 그 학교의 특정 교수를 언급하며 그 교수의 대체적인 연구분야에 어떤 종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포함시켰다. 세부 분야 대신 전반적인 연구분야를 적은 이유는 그 교수의 최근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교수의 최근 주제 및 연구분야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면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경제학 유학 준비 과정에 대한 필자의 두서없는 긴 글을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이다. 사실, 유학 나가게 될 학교를 최종결정하는 과정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를 전달할 지면이 부족하여 넘어가기로 했다. 본문이 길기도 길거니와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과 단순 사실관계를 모두 전달하려다 보니 글 주제가 알쏭달쏭해진 것 같아 죄송스럽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1. 자신의 강점을 잘 찾아서 부각시킬 것. 2. 영어는 이유를 불문하고 일찍부터 열심히 연습할 것.

LES (Law & Economics Society)

LES (Law & Economics Society : 서울대학교 법경제학연구회)는 경제학부 학생들이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것을 계기로 2005년에 정식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님의 지도 아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의공정위 대회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명실상부 서울대 최고의 학술동아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LES의 비전은 '융합' 입니다. 산업조직론을 비롯한 경제학의 여러 이론을 공부하며 동시에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합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경제 이론의 현실 적합성, 법과 판례의 이론적 타당성을 창의적이며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토론과 발표를 통하여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은 LES 회원들이 이론과 실재를 융합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장차 정책전문가, 법조인, 기업인 등 다양한 위치에서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LES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이러한 공정위의 역할에 맞추어 가상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연극을 통해 의결과정을 시연하는 대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과점의 폐해 시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등의 주제를 경쟁법과 경제학적 논리를 통해 풀어나가기 때문에 경제학부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팀이 법학부(과) 소속인데, 경제학부인 LES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LSE 전체발표

고 팀 세미나를 바탕으로 최소 2회의 전체발표를 합니다. 전체발표에서는 모든 활동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자신의 팀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다른 팀들의 연구내용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때문에 전체발표는 자신이 깊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팀의 발표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 LES-EATH 연합 세미나

1년에 두 번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학회 EATH (Economics Academy of Tsinghua Univ.)와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여름 방학에는 서울에서, 겨울 방학에는 북경에서 개최됩니다. LES-EATH 세미



▲ 2010년 겨울 LES-EATH 연합세미나(북경)

나는 법경제학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마이크로 크레딧 등 다른 분야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LES-EATH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학생들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각자의 학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제적 감각을 키웁니다. 세미나의 모든 과정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알차게 준비한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열띤 토론을 벌인 칭화대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연합세미나는 칭화대 학생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세미나 준비를 하며 동고동락한 LES 회원들 간의 유대감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4. 친목도모 및 행사



▲ 2010년 스승의 날 행사

잘 노는 것 또한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LES는 매년 9월 뽕뽕뽕뽕한 눈빛으로 동아리 문을 두드리는 신입회원들을 위한 환영 MT, 관악산 정기를 맘껏 들이마시는 등산, 날씨 좋고 시험 끝난 어느 날 훌가분하게 떠나는 야유회, LESian들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정신적 지주이시자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시는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고 스승의 날 행사, LES의 초석을 다지시고 발전시켜주신 선배님들을 만나는 LES 홈커밍데이 등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MT, 뒤풀이 등의 친목도모 행사를 통해 LESian들은 인생의 황금기인 대학시절에 소중한 친구, 선배, 후배, 교수님과의 인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LES는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에 진출하신 선배님들부터 패기와 열정을 갖고 새로운 LESian으로 들어오는 신입회원들까지 상호간의 애정이 더욱 깊어지며 점차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승 지도교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LESian들의 열정과 노력이 하나 되어 모의공정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LES는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나갈 LES의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할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LES 현 회장과 부회장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처 010-9315-4724 (회장 경기동)

snules@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snules.com>

학생수상 및 장학금

2010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0년 3월 3일 오성환, 이상승, 이준구, 이지순 등 13명의 교수는 호암교수회관에서 20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윤준현 학생과 이형구 학생이 성적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상대동창회로부터 상을 수여 받았다.

2010년 1학기 성적우수장학증서 수여식

2010년 5월 4일 소담마루에서 이상승 부학부장은 현정식 외 10명의 성적우수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2009년 김태성 기념논문상

경제학부는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재학생들이 경제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김태성 기념논문상을 2003년 제정하여 현상공모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이문섭, 허영수, 은동재(공저)의 'Over-investment in a Sequential Game with Laboratory Experiment'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2009년 김태성 논문장학금 시상식

2010년 1월 11일 동원생활관에서 김태성 논문장학금 시상식이 열렸다. 박사과정 권은지, 김학철 석사과정 심정보, 김태훈 학사과정 현정식, 고아미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앞으로 더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학부는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김태성 논문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64회 학위수여식



제64회 학위수여식이 2010년 2월 26일에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이준협 외 2명의 박사를, 한청용 외 29명의 석사를, 윤준현 외 162명의 학사(최우

등 18명, 우등 73명)를 배출하였다.

2010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0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24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3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11학년도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1년도 석박통합과정 후기모집을 실시하였다. 석박통합과정은 석사 및 박사 전공필수 과목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 고급미시경제학, 고급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모두 수강한 석사생 중 졸업 및 수료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지원가능하다.

전공진입생 오리엔테이션

경제학부는 2010년 전공진입생을 대상으로 학부안내 오리엔테이션을 2월 23일에 개최하였다. 학부장 및 부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공진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준구 교수는 교수들을 대표하여 환영인사와 함께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 주었다. 행사의 끝으로 경제학부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소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사지도도를 실시했다.

전공진입생 기초수학강좌

경제학부는 2010년 2월 17일, 19일, 22일에서 24일까지 총 5일에 걸쳐 경제학부에 전공진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학부 전공과정에 필요한 미적분학 분야의 수학 기초강의를 실시하였다.

201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10년도 하계계절학기 수업이 6월 21일~7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 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제통계학, 경제사 및 경제수학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조교인사

경제학부 조교실에서 입시를 담당하던 황순주 조교(2010년 7월 23일자)와 교무 및 총괄

을 담당하던 유원석 조교(2010년 8월 31일자)가 퇴임하고 입시 담당에 심정보 조교가, 교무 담당에 정진용 조교가(모두 2010년 9월 1일자) 신규 임용된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0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Growth (기업구조와 성장론 연구)
김병연	Studies in Applied Econometrics (응용계량경제학연구)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론연구)
이상승	Topics in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론 특수연구),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론)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공공정책연구)
이승훈	The Korean Economy: History and Recent Changes
Xifang Sun	Principles of Economics1 (경제원론1)
Chenggang Xu	Topic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Economic Systems (기업조직 및 경제체제특수연구)
Elias Sanidas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경제론) Studies in Economic of Organization and Technology (조직과 기술경제학 연구)

2010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0년도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석사과정 8명과 박사과정 1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 중 석사 1명과 박사 1명의 학생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게 된다.

UC버클리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파견

경제학부는 이번학기에 3명의 방문학생을 BESAP으로 파견하였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UC-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UC-Berkeley 경제학과와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게는 학부에서 방문 수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어학위논문작성 지원

본교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사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할 경우 석사 100만원, 박사 200만원을 교정료 등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학기 경제학부에서는 석사과정생 5명, 박사과정생 2명이 지원대상으로 선발되었다.

정운찬 前 교수 '빛내자 상' 수상



정운찬(鄭雲燦) 前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사진 왼쪽)가 2010년 1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정기총회에서 '빛내자 상'을 수상하였다. '빛내자 상'은 대내외적으로 상과대학의 명성을 높이며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상대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정운찬 교수는 1970년 본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미국 프린스턴대(Princeton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콜롬비아대(Columbia University) 조교수를 역임한 후 본교 경제학과로 부임하여 30여 년간 학계와 민간부문 및 관계(官界)에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수업과 논문지도 등 학생들의 교육에 열정을 쏟았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 분야에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대표적 학자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제23대 총장직에,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40대 국무총리직에 봉직하면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서울대경제 최고 전략과정 안내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이미 6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2. 동창회 조직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모집안내**
- ① 모집인원 약 40 명
 - ②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의 사장급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③ 지원절차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우)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 ④ 문의사항 TEL : (02)880-5432 FAX : (02)875-9867 E-mail : asp@snu.ac.kr Home Page : http://econ.snu.ac.kr/~ecores

ASP 제19기 수료자 명단

강길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부장검사	서동현 에스에프헤미리 대표이사	최동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갑 주)현대방화문 대표이사	안석현 국민은행 본부장	최석기 국방부 합참 전비검열실
강형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오세임 우리투자증권 상무	검열관(육군 대령)
고희재 정보사령부 육군 준장	이대산 KT 상무	최영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경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이대수 우리선물 대표이사/사장	최재호 산은캐피탈 상무
김성훈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이재이 예금보험공사 부장	한규태 하나은행 본부장
김원일 한국산업은행 부장	임재현 이트레이드증권 상무/IB본부장	한기은 제일학원(사)제일홍익학교
동학림 중소기업은행 부장	주영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이사장
박상현 (주)두산 상무	전문위원	
방두훈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주중운 STX Pan Ocean 고문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 E-mail : kang97@snu.ac.kr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지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mail : skb0629@snu.ac.kr ● 전화 : 02-880-6359, 6398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